

모두 다 맹렬히 집으로 가고 있는 저녁나절
길가의 술집 앞에는
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한 무리의 술꾼들이
희희낙락 묘한 활기를 띤다.
고단했던 하루일과도 복잡다단했던 관계들도
한 잔 술에 털어버리고 지글지글 맛난 안주를 집어 든다.
이 시간 집으로 가고 있던 나는 그만 발걸음을 돌리고 싶어진다.
저 쪽 한 복판에 앉아 저녁식사 대신 안주 한 접시와 술 한 잔으로
한갓진 저녁을 맞이하고 싶다.
굳이 저녁약속이나 예정된 미팅이 아니라
그 자체로서의 술 한 잔 말이다.

나는 아무래도 카페, 밥집보다 술집을 더 좋아하는 거 같다.
술집이라면 선술집에서부터 맥주 집, 막걸리 집, 와인 바까지
모두 다 내 집 같다 ㅎㅎ.
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
아저씨들이 아무리 바글거려도
과부아줌마처럼 혼자 들어가서 술 마신다
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일과를 잠시 훑어보고
망연히 앉아 한잔 싸하게 마시면
여행의 충족감이 산뜻하게 마무리된다.
이때만큼은 누군가 말 붙이는 건 딱 질색이다.

깊은 밤 달리 할 일 없이 들어간 술집에서는 합석을 하여도 괜찮다.
쿨한 호기심으로 안주도 나눠먹고
격의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버뜨리다
홀쩍 일어나 혼자 돌아갈 수 그런 만남은 기대되는 대목이다.

나는 술집에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.

옆자리가 비어있듯
관계를 과시하지 않고
덜 왈자하게 술 마실 수 있는
조금은 외로운 한 잔 술이 목마르다.